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在日同胞の宣教を模索

神学生会、熱海で開催

去る四月九日(十一日、熱海) 棒山荘にて第二回神学生会がもたれ、講師一名、牧師二名、神学生八名、計十二名の参加があった。今回は講師に池田明先生をお迎えし、「これからの在日同胞社会における伝道」という主題の下に、池先生の講演と神学生の発題、討論、質疑応答によってプログラムがすすめられた。まず講演では、教会に少数者としての在日大韓教会の存在意義と課題について語られた。いつの時代にも、どこにおいても真の教会とは、常に少数者としての教会である。それは「二・一五」にあるような曲った邪悪な時代の中にあっても、神の子として星の如く輝く存在であり、たとえナチスの下での告白教会や、日帝の神社参拝強要に反対した本國教会の存在である。そして少数者であるゆえの苦難に対しては、「残れる者」(列王記上十九)として祝福があるのであり、残れる

者、預言者といった少数者の思想は、聖書に貫かれているキリスト教信仰の代表的モチーフであり、真徳でもある。そして大韓教会は、日本社会の中に存在する少数者である在日同胞社会に仕える神のパートナーとしての使命を与えられているのであり、少数者である同胞社会のさらなる大韓教会が、同胞社会に奉仕し仕えるという使命を誇りと感謝をもって遂行する時、おのずと同胞社会の「痛み」をも照らす星の輝き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と語られる。

また神学生からは、(一)在日大韓教会の礼拝における言葉の問題、(二)在日同胞教会史を学ぶ、(三)在日同胞「教会論」について、それぞれ発題がなされた。(一)は同胞の80%以上が母国語を解せない青年たちが占められている現実の中にあつて、まして未信者や初めて教会を訪れる者にとって、우리말だけの説教や簡単な説教は、残念ながら講師と神学生との講演内容について十分な意見



教団과 宣教協約에 関해 作業을 하는 위원들

金君植総務は、作業委員の金君植総務の別荘で、同委員会が延期되었음을 사하고各地域에서 가진 交流(西新井下関等)の報告があった。全体討議に 있어서 앞으로 交流을 加緊하고 더욱이 教団會社가 적극적으로 推進하기로 했다。

協約案の批准を一九八二年度に 実施할 수 있도록 作業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作業目標을 세우기로 했다。다음 委員會까지 協約案의 檢討, 年表作成회 地方會교區)의 交流, 한글 있으면 協約案을 갖고 심도지을을 도모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日韓의 交流에 더 중점을 두어 왔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教団과의 宣教協約委再會

来年總會에 批准을 목표

日本基督教団과의 宣教協約 作業委員會가 四月十三日(月) 午後二時 教団小會議室에서가 情으로 同作業委員會를 中斷했다。

해 왔으나 約十個月만에 모는 事情이 구비되어 다시 열 개되었다。同作業委員會는 兩教會가 순번으로 司會를 맡고있어 이번에는 金君植總務의 司會로 進行했다。먼저 昨年 六月에 加졌던 作業委員會의 合意事項의 報告가 있었다。그內容엔 日本神學校에 다니는 在日韓國人學生에게 在學中 韓國神學校에 留學하여도 單位를 認定받지, 年表를 정리한 것, 地方會・教區단위의 모임에 參加할것을 이었다。

関西中・高校生韓国訪問

— 母國教會と交流 —

協約案을 具體적으로 檢討하는 作業에 나서기로 했다。年表作成에 있어서는 一九四一年에 強制적으로 日本基督教団에 加入 一九四五年에 在日大韓基督教会를 再建할 때까지의 歴史에 空白이 있어 兩教會에서 歴史를 매우기 위해 努力하고있다。現在 唯

一한 資料로선 特高資料에의 한「戰時下のキリスト教運動」(新教出版社) 밖에없다。이空白의 歴史를 매우기 위한 資料의 提供을 바라고 있다。協約案作業委員會는 다음과같다。教団・岸本一牧師(教団副議長) 今橋朗牧師(同書記)

中嶋正照總幹事、倍席、大塩清之助牧師、徳永五郎牧師(以上日韓連帶) 總會・黃義生牧師(副會長) 李大京牧師(副書記) 姜榮一牧師、金君植總務 次回は 六月八日(月)午後二時一五時

三月二十五日より三十一日までの七日間、関西地方青年部主催による、祖國訪問の旅が、中高校生十四人を含む十九人の参加により行われた。高校生を対象に、本國教會高校生との交流や、史跡を訪ね、祖國への関心を高め、在日韓國人基督者としての自分自身の発見へ、大きな契機とすべく企画實現された。二十五日に大阪を飛びたち釜山へ向った。

この二十八・二十九日の両日は、教會信徒宅に民泊し、その人達との自由時間も取り入れ交流を深めた。三十日は市見學で、三十一日午後帰路についた。初めての祖國訪問、本國教會の人々との、交わりが与えたインパクトは、大きかった。彼らの感想にも「もつと居たかった」「夏にアルバートをして行きたい」「民泊に不安はあったが、非常によく準備をしていてくれて、うれしかった」等が多く出され、良い刺激になった。祖國訪問の旅だった。主催者側でも、毎年一回は、定期的に行いたいし、東信教會も望んでいると、今後に意欲を燃やしている。



母國教會を訪問した関西中・高生の一行

五月号休刊

本報 지난 5月15日 号는 事情에 의하여 休刊하였으나

福音新聞社

在米韓国教会青年との交流および観光

期間：1981年8月3日(月)～28日(金) <25日間>

旅費：475,000円(往復旅費・滞在費・全期間食費のみ、東京発到)

引率：康恩弘牧師(米國連合長老教・南長老教 派遣宣教師)

コース：ロサンゼルス～アトランタ～シカゴ～ワシントン～ニューヨーク～ナシアガラートロント～サンフランシスコ～他

特色：在米韓国教会青年との交流、ホームステイ等を通して、在日韓國人としての自分をみつめる旅

申し込み：関東地方 姜榮一牧師、中部地方 李海春牧師
関西地方 金安弘牧師、西南地方 康恩弘牧師

申込締切日：6月30日(火)

募集人員：15名

主催：總會青年局、後援：在米韓国教会・福音新聞社

洪顯高牧師

敎會와 地域社會의 問題는 결코 새로운 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아직도 明確히 지적된 것이 없다. 傳統的인 敎會의 指導者들은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敎會가 예수 받아들이고 있다. 敎會가人間에 對한 信仰에서 멀어질 때 社會事業은 反對로 人間에 대한 열성적이며 比較的에 대한 信仰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敎會는 組織되지 않은 人間을 고 말한다.

어떤 社會事業家は 敎會는 制度化된 良心이 아니면 超自我이기 때문에 人間의 自己의 問題를 도와 주기에 資格이 具備되지 않았다.

教区로서의地域社会

그 이유는 오늘에 와서는物質의인 援助에 關한 責任은 政府나 一般 公衆이 맡게 되었으니 敎회는 人間들의 非物質的인 靈의 要求에만 全 心을 기울여주 있게 되었다.

여하간 지금은 敎회가 敎會만을 敎區로 생각하던 時 代는 지나갔다. 그 敎회가 位 置한 全地域社會를 自己의 敎區로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엇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感激해서 이런 牧師는 生전 처음 보았다고 탄복하는 이야기다.

근자에 와서 洞里안에 있는 禮拜堂을 禮拜以外の 目

사람들을 相互 理解로 引導하고 激勵하며 大衆들에게 해서는 금지하고 信念을 주어 야하는, 보다 어려운 과업을 이 오늘의 敎會에 대해서 繼承的인 挑戰을 해온다. 따라서 現代의 人格, 社會 조인 牧會와 路邊에서의 牧會는 地域에서 商店을 中心 牧會와 路邊에서의 牧會는 麻布地域에서 牧會와는 內친구 牧師 한분은 그

그런데 教會는 人間의 能力과 可能性에 對해서 自身이 희박하게며 人間의 自律性은 制限되어 있고 人間은 神의 慈悲와 恩寵에 依賴하여야 한다는 強力한 主張을 하기 시작하여 神만이 그의 상설된 人間の 尊嚴性を回復할수 있다고 神學者들은 주장한다.

(二)의 사에는 아무런區別이 있을줄 없음을 發見했다고 한다. 이두가지가 결코 敵對關係에 있을수도 없고 또 서로 분간키 어려우리 만큼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내가 奉職하는 神學校 卒業生 한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經驗談을 들려주었다. 그가 보는

그런데 한번 牧師는 學校兒童들에게 平日에도 禮拜堂를 開放하자는 提議를 했더니 堂會가 크게 反對하고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는 牧師의 고집으로 그에게 넘기기로 하고 禮拜堂를 開放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神學校를 졸업한 어린이들이

未組人
間
을위한
使命

그러나 그反面에 社會事業
은 公衆에 있는 人들에
게 影響을 주는 物質과 環

은 靈의 問題가 아니라農
事에 関한 일들이었다. 그
러서 그는 即時 農業에 関한
책을 사다가 熱心으로 자
습을 했더니 六個月후에는 그
洞里面에서 農事의 專問家가 되
었다는 것이다.

또 내가 아는 어떤 先輩
牧師는 敎友들의 모든 어
려운 問題를 適切 解決해 주
는고로 교인들에게서 問題解
決家라는 別名을 듣게 되었
다.

牧師는 地域社會에서 一般
開業의 診療医가 되어야 한다
즉 자기의 専門分野가 아
니라도 그대로 돌려 보낼
수는 없다.

教会와地域機關과의協力

그리고 敎會는 그地域社會 안에 있는 沿邊하는 機關들과의 緊密한 協力이 必要하다. 敎會는 善한 사마리아사람처럼 不幸한 人들을 도울려고 하면 「가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하신 命令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人間의 社會的인 상치는 여러고 途上에서 강도 ฆ이 누워있는 사람처럼 항상 우리 가 보는 앞에서 괴를 흘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社會的인 상치는 대개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內出血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敎會는 항상 신자들의 生活에서 어떤 重大한 社會問題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能力的이며 情報에 밝은 對話가 不斷히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一九五七年에 美國의 基督敎連合會가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政策과 戰略」이라는 主題를 가지고 에틀란티市에서 모였을 때 敎會가 해야 할 優先順位の 일을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設定했다.

- ①住宅問題
- ②人種과 各集團間の 關係
- ③家庭生活
- ④世界秩序
- ⑤老年들을 위한 서비스
- ⑥敎育의 機會問題
- ⑦精神健康的인 問題

오늘날의 敎會가 地域社會에서 特別 關心을 가져야 할分野는 불구자들과 그들의家族 都市정신의 問題, 少年犯罪, 言論 出版 信仰의 自由의 問題, 公署와 그政策 등 重要的인 問題들이 있다.

地域社會를 떠나서는 敎會의 거점이 없으며 地域社會에 奉仕하지 않는 敎會는 敎會의 眞 使命을 忘脚한 敎會라고 하겠다.

(이論文은 洪顯高博士著作全集 I에서 轉載했습니다.)
(監理敎神學大學前學長)

説教

선교의 집으로서 가정

에베서 2 : 17 ~ 21

鄭 永 吉 牧師（岡崎教会）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사랑도偉大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법 가운데 人間의 倫理의 最初의 基本法이 (第五 誠命) 니희 父母를 공경하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父母를 사랑하는 것은 人間의 道理에 마땅한 본分입니다.

家庭이란 단순히 살기위한 집으로서의 存続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實現하는 곳으로의 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實現으로 하나님을 진전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家庭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며 子女들은 父母를 공경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子女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에서 그 子女는 하나님의 사랑을 經驗합니다. 사랑의 經驗을 하는 사람은 満足해합니다. 평안합니다.

을 아꼈다. 않고 주면서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人間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家庭은 하나님의 사랑이具體化하는 곳입니다. 父母가 子女를 사랑하는 곳으로 家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불우없는 유령의 아버지, 가출한 아버지, 도망자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머니는 간섭자로서가 아니라 相談者 親旧로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子女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家庭은 期待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삶의 目標을 向해서 努力하고 信仰으로 살아가게 될때 그 子女들은 어머니를 섬깁니다.

子女들은 어머니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왜냐면 보이는 아버지



한少女가 어머니의 사랑을 못내 그리워하며 자기반 아이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던 고운 마음이 온세 위에 퍼졌다고 하는것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偉大한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어머니 주인의 유래가 되며 父母님 가슴의 고운웃음을 꽃이주게 되었다고 생겼한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들은 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넓으며 큼니다.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때도 잊읍니다. (요한二:十六) 아버지의 사랑도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때도 잊읍니다. 마치 하나님의 길은 사랑을 일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은人間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전주어 說明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独生자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의 잔을

아아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사랑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父母는子女을 사랑으로 養育해야만 합니다. 聖經은 말씀에 順從하며子女들을 노예게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엡六:一) 父母는子女들의 無限한可能性을 認定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經驗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것으로 갈수없습니다. 아픔은 父母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픔에게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한것이며 너를 도울 것이며 祝福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아픔은 感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모든 所得의 심부의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픔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픔에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子女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기것

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獻身하고 섬기는 것은 信仰입니다. 孝道는 信仰과 같은 것입니다. 孝道는父母에 대한 応答입니다. 信仰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底인듯이 孝道는 父母에 대한 은사에 報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孝道는 一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父母를 사랑하듯 모르는것은 잊을수 없습니다.

어머니主日의 由來가 된 마리아는 그의 信心으로 더욱 광의 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信仰으로子女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宣敎의 目標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家庭의 生存은 하나님의 宣敎를 위한 것입니다.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食品・薬品包装業

加富利産業 有限会社

代 表 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 (890) 0951 番(代)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251-5444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 話 大阪(06)981-2980番
974-7715番

青年会春季修養会

四地方会で開催

関東地方会

主題——青年の連帯——



会長 曹 玉 千

5月3・4・5日の連休に恒例の春季「合宿」を伊東の「井原の庄」において行った。従来の「修養会」という名称だったが、講演や音楽などの活動は、別々に行なうという形に改められた。この結果、様々な議論はあったものの、講演の代りに青年の証詞を入れ、聖歌を行なうことになった。聖歌もあらかじめ青年の一人が聖句を選び、その時代背景などを調べ、それを基に意見交換を行なうようにした。このように流れの中で「春季合宿」と名称を決定し、主題を「青年の連帯」とした。

初日から大規模な時間のズレ込みがあったものの、開会礼拝、オリエンテーションとどうにかプログラムを終えた。開会礼拝において聖書(ローマ書12章2・12)を輪読し、朴永雄司牧長より簡単なコメントをいただいた。2日目は、早大礼拝、そして証詞と討論会を午前中に、初め、証詞は礼拝堂の田光礼拝堂で行なう予定だったが、都合により合宿にいられたくないため李相錫氏が代わりをつとめた。突然のことでもあり、そのための苦しみは違いないものだったが、在日韓国人である自分が、青年会活動、地域活動に関与する中で見えた現実や様々な問題、課題を自らにひきつけたところまで話してくれた。討論会は、その話を受けて、自己の生活と青年会活動、関東連帯の意義性といったことが話し合われた。午後は、ドライブに行き記念写真をとったりしたが、大変な混雑でかえってつかれてしまったようだ。その後、聖歌をもち、金健氏よりマタイ6章5・15の主の祈りについて簡単な説明の後、この祈りがいかに私たちの生活に密着しているものか、あるいは、出発の時間に追われて、出発の時間に追われて、かなりあわただしかったが、閉会礼拝の中で、互いに感謝を述べ合い、主の祈りをもって、無事合宿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決して成功だったとは言えない。参加者12名(4教会)という少ない人数もさることな

(報告 曹玉千)

中部地方会

主題——キリストと苦難を共に——

今年の春期中部地方連合青年会修養会は、岐阜県長良川ハイウェイにて5月3・4両日中部地方会青年部と中部地方連合青年会主催により開催された。長良川畔の風景のよい恵まれた環境の中で、前年度からの「キリストと苦難を共にする神の相棒」という主題のもとに岐阜教会李海春牧師の開会礼拝で開会し、続いて地方会長からこの一年間を「苦難」の聖書理解を通して、これからの教会青年がより地に根ざし奉仕する者となるよう訴える発言があった。今回は青年の主体的意思の表れとして聖書研究と社会研究発表の両プログラムを各青年が担当発表した。前者では「新しい人を着る」という事について活発に議論され、後者は最近西南地方で起こった問題を契機に、在日同胞の外人登録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よく研究した項目を発表した。初めての事とはいえ、恐ろしく「やってみる」事を実現した内容と努力は評価できる。

さて翌日は桑名教会アンダーソン牧師の早大礼拝に始まり、今回川西教会より招いた金承俊牧師の講演があった。金牧師は初対面の中部青年だが、金牧師が日本の物質優先社会の中に置かれた在日同胞の状況を分析した時には真面目な問題にもかわからず度々爆笑が起った。特に「マンネリ病」「イヤイヤ病」等と名づけられた現代病の

西南地方会

主題——教会の将来を考える——

西南地方青年連合会春期修養会が、五月三日(四)・四日(五)の両日に渡り、福岡・国民宿舎「千石荘」に於て、青年会OB・婦人会十名を含む二十二名参加のもと行われた。

今回は、「教会の将来を考える」という主題のもと、青年だけの会ではなく、広く信徒の方々と共に、在日大韓教会の将来について考え、又、親睦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行われた。主題発表は、壮年・青年・青年会OB・婦人会からそれぞれなされた。

壮年側からは、老人問題の解決が、教会の発展につながる。青年側からは説教における言葉の問題、青年指導の不徹底、魅力ある教会づくり、教会における民族教育の必要性、在日の文化創造を担っていく中から信仰の形成がな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OB・婦人会側からは、「三世の悩み・生き方を導く説教の必要性、言葉の勉強よりも聖書勉強が先、時代に合った教会づくりの必要性」という内容の発言がなされた。

二日目は、前日の発展をもとに、説教における言葉の問題、魅力ある教会づくり、という点を中心に討論会が持たれた。言葉の問題については、将来に渡り、日本語の二つに分けたり、日本語礼拝のみにしたりせずに、一つの礼拝の中で日本語と日本語を半々の割合で行なうべきか、という意見が出た。

関西地方会

主題——礼拝と社会奉仕——

去る、五月三日・四日と一泊二日の修養会が京都教会にて行われた。講師として、京都南部教会の神学生である金性済氏を迎え、「私たちの礼拝と社会奉仕」というテーマで語ってもらった。参加者は20名と少人数ではあったが、無事プログラム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

この修養会において、まず、私たちが痛切に感じたとしたこと、何よりもこの大きな関西地方において、どうして、これだけの人数しか集ま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と考え、話し合いました。そして、それは第一に、私たち個人個人のつながりが、教会同志のつながりが薄いのではないか、と素朴な発言がありました。実際、そうだと強く感じさせられました。話し合う。又は、肌の合う。と言った風な青年あるいは教会とだけ私たちが深く接してい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は、同民族、そして、キリストによって一つであり、そうでなければならぬと分かっている。現実の私たちの環境、さまざまな問題によって、その事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に気付かされました。年々、関西においても青年の集まりが減少して行く現実を見た時、本当に不安であります。しかし、私たちは、こういった状況の時こそ、皆で力を合わせこの大きな問題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ぬと思ひます。そして、この修養会に参加した青年は、こういった責任

教役者・長老修養会

於 三重県鳥羽

総会事務局 局長 金張植牧師
主催 教役者・長老連合修養会
日 時 七月七日(火)・八日(水)
場 所 ホテル 松壽(伊勢志摩国立公園鳥羽)
三重県鳥羽市小浜町三〇一
〇五九一五二一三〇〇
参加費 三三、〇〇〇円
マ ン 六月二十日
主 催 総会事務局

御 案 内

第53回基督教音楽講習会

日本基督教団讃美歌委員会では、毎年教会音楽の向上と奉仕者の養成をめざして、「基督教音楽講習会」を行なっています。今年は、講演・礼拝の講義、パイプ・オルガン・リードオルガン・声楽・聖歌隊指揮法等の実技指導が行われます。

主題 「礼拝の歌とことば」
会期 八月二十四日(日)
会場 東京神学大学
(特別講演)
クリスチャン俳優、長岡輝子氏に、詩の朗読の実演と実技指導

第3回教会学校音楽講習会

この講習会は、教会学校音楽奉仕者の実状に合わせ、高度な技術と目的意識を、教会学校の教師や音楽奉仕者として、必要な素養と実力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教会学校礼拝のあり方、こどもさんびか等についての指導を中心に行います。

主題 「礼拝のうたことば」
会期 八月二十四日(日)
会場 日本ルーテル神学大学
(特別講演)
クリスチャン俳優の長岡輝子氏に、詩の朗読の実演と実技指導

音楽講習会

「音楽理論」 「和声I初級」 「和声II中級」 「作曲・編曲法」の四クラスに分け、毎年順次受講して行く。

「音楽理論」 「発語法」 「礼拝研究」 「讃美歌研究」 「リード・オルガンの保守と修繕」 「合唱」の六クラスを行います。

特に「合唱」希望の方は、パートのバランス等の関係上人数に制限がありますので、早めにお申し込み下さい。

尚、ゼミの時間は、実技の時間と重複するので、個人レッスンのない時間に参加するようにします。従って個人レッスンの形式をとらない指揮法の受講生は、ゼミをとることは時間的に無理があることを承知ください。

これらの他に、パイプ・オルガン、リード・オルガンの公開実技、混声合唱、女声合唱、夜のプログラムには、懇親会、申し込み下さい。

問い合わせ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二二二一八四一
日本基督教団讃美歌委員会
TEL 二二〇四一〇四二五